



미 증시, 민간고용, ISM 서비스업지수 부진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5 일(수) 미국 증시는 3 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구인건수에 이어 민간고용 역시 부진, ISM 서비스업 지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다우 +0.24%, S&P500 -0.25%, 나스닥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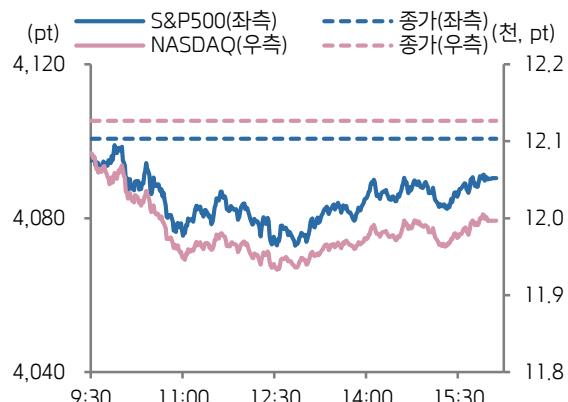
미국 3 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대비 14.5 만명(예상 21 만명, 전월 24.2 만명) 증가하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 산업별로 레저·접객 9.8 만명, 건설 5.3 만명, 광업 4.7 만명 증가했으나, 금융 -5.1 만명, 전문직 및 사업 서비스 -4.6 만명, 제조업 -3 만명으로 감소. 집계측은 "3 월 일자리는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여러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

3 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1.2(예상 54.4, 전월 55.1)로 예상치 큰폭하회. 신규 주문은 전월 62.6에서 52.2, 지불가격지수는 65.6에서 59.5, 물가지수 65.6에서 59.5로 감소. 집계측은 "종합지수는 석 달 동안 50을 웃돌아 해당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지만, 신규 주문 증가율 둔화, 업종별로 다른 고용 여건 등에 서비스 부문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평가.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역시 52.6(예상 53.8, 전월 50.6)으로 예상치 하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종금리는 연준 중간값 5.1%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가인상 가능성 시사. "인플레이션을 2%까지 지속적으로 낮추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정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가 5%를 웃돌고 실질 연방기금금리도 당분간 플러스(+) 영역에서 머물 것"이라고 언급. 향후 5 월 FOMC 25bp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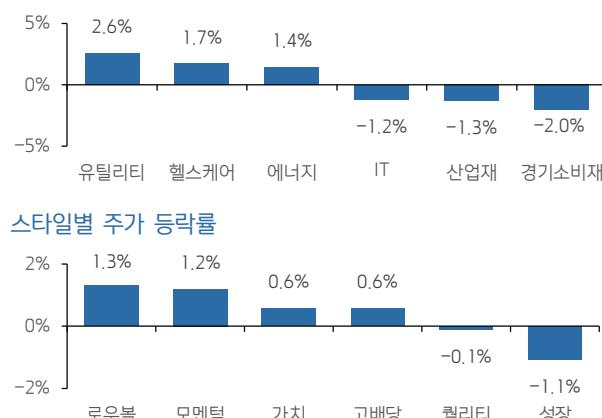
업종별로 유트리티(+2.6%), 헬스케어(+1.7%), 에너지(+1.4%) 업종 강세, 경기소비재(-2%), 산업재(-1.3%), IT(-1.2%) 업종은 약세. 미 국채 10 년물 금리가 3.3%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수요 둔화 우려가 우세하며 엔비디아(-2.08%) 마이크론(-0.44%), AMD(-3.45%), AMAT(-2.33%) 등 반도체 관련주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5.21	+0.59%	USD/KRW	1,310.55	-0.4%
코스피 200	323.56	+0.56%	달러 지수	101.90	+0.3%
코스닥	872.36	+1.77%	EUR/USD	1.09	+0.03%
코스닥 150	1,299.07	+2.44%	USD/CNH	6.89	+0%
S&P500	4,090.38	-0.25%	USD/JPY	131.27	-0.04%
NASDAQ	11,996.86	-1.07%	채권시장		
다우	33,482.72	+0.24%	국고채 3년	3.267	-0.5bp
VIX	19.08	+0.42%	국고채 10년	3.327	+1bp
러셀 2000	1,752.13	-0.99%	미국 국채 2년	3.780	-4.6bp
필라. 반도체	3,085.98	-1.8%	미국 국채 10년	3.311	-2.8bp
다우 운송	13,914.49	-0.79%	미국 국채 30년	3.570	-2.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8.36	-0.39%	WTI	80.61	-0.12%
MSCI 전세계 지수	645.06	-0.4%	브렌트유	84.84	-0.12%
MSCI DM 지수	2,784.05	-0.46%	금	2035.6	-0.13%
MSCI EM 지수	987.85	+0.02%	은	25.04	-0.25%
MSCI 한국 ETF	60.62	+0.12%	구리	398.65	+0.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4.9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침체 우려에 따른 나스닥 약세가 국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저해할 가능성
3. 7 일 휴장을 앞둔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매패턴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초 랠리 배경을 되짚어 보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 '22년 폭락 이후 기술적인 주가 되돌림 현상 이외에도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증시 상승의 주된 역할을 해왔음. 특히 지난 2월 중 발표된 1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지표 호조로 인해 한 때 노랜딩(경기 무착륙) 가능성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으로 자리잡았던 적이 있었음.

그러나 3월 중 SVB 가 촉발할 은행권 위기는 많은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연준의 고강도 긴축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상황.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가 노랜딩이 아닌 랜딩(침체) 경로를 따를 것이며, 침체의 강도가 얕은 침체가 될지, 깊은 침체가 될지를 따지게 되는 시장의 전망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일 발표 예정인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일 발표된 3월 ADP 민간 신규고용이 14.5 만건으로 전월(26.1 만건) 및 컨센(20.0 만건)을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은 경기 노랜딩의 주역이었던 “탄탄한 고용시장 기반”에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3월 ISM 서비스업 PMI 역시 51.2로 전월(55.1) 및 컨센(54.5)을 큰 폭 밀돌았다는 점은 한동안 진행됐던 제조업(부진세)과 서비스업(호조세)의 탈동조화 현상이 아래적이었음을 시사.

더 나아가, 3월 ISM 지표 상 제조업 신규주문(2월 47.0 → 3월 44.3), 서비스업 신규주문(2월 62.6 → 3월 52.2)의 동반 급락은 추후 실물 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미국의 신규주문은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수출 주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 수요와 관련이 높은 만큼, 경기 침체 강도가 깊을 시 현재 바닥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코스피의 이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소지는 존재.

하지만 경제가 아닌 주식시장 관점에서 생각해볼 점은 경기 침체 이슈는 이미 지난해 약세장을 거치면서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해왔다는 것. 1950년대 이후 총 12 차례의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중 침체가 발생했던 적이 총 9 차례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을 시장에서도 지난해 인상 사이클 진입 때부터 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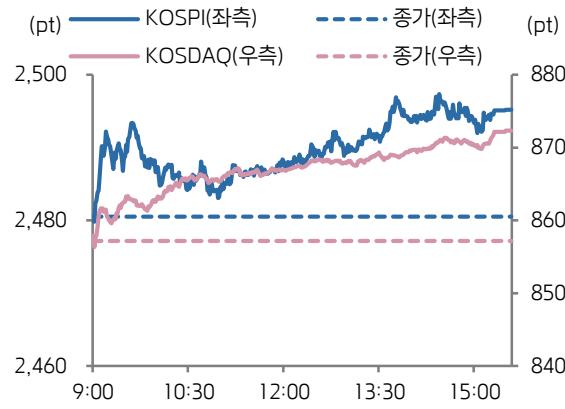
OECD 경기 선행지수 상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 침체 촉발의 주체였던 연준 역시 향후 FOMC 들에서 덜 긴축적인 결정들을 내릴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이를 감안 시, “깊은 침체 진입에 따른 코스피 이익 전망 큰 폭 악화, 그로 인한 증시 밴드 하단 하향 돌파 및 약세장 재진입”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낮다고 판단. 아직까지 경기 침체 강도를 둘러싼 시장 내 의견 대립, 추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와 1분기 실적시즌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주식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발 경기 불안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속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2차전지, 제약주 등 주요 테마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1.8%).

금일에는 침체 우려에 따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8%), 나스닥 약세 등 미국발 부담 요인이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군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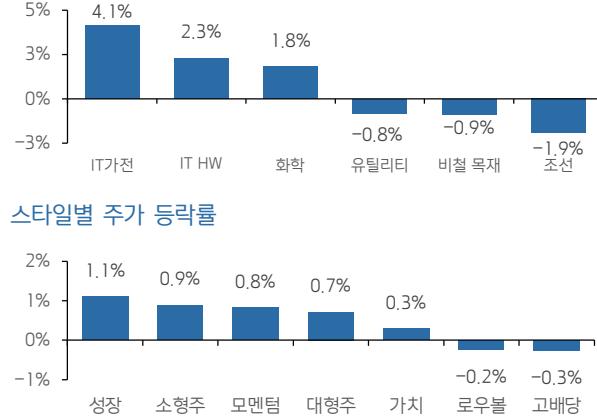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코스닥 현물 매수 등 엇갈린 수급 패턴을 보였던 만큼, 금일에는 전일과 같은 매매 패턴이 지속될지도 관건. 또 7일(금) 미국 증시 휴장임에도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고용지표 결과는 통상적으로 금요일 미국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이번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반영이 되기에, 금주 남은 미국과 한국 증시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관망심리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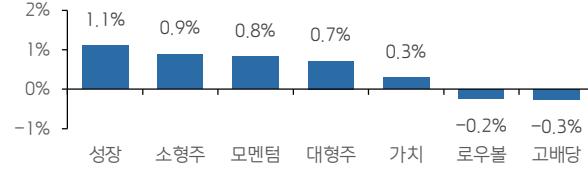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